

일본 국제농업개발협력의 동향*

정 승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면서

일본은 상당한 예산규모로 1954년부터 반세기가 넘게 공적개발원조(ODA)¹⁾를 지원하고 있는 전통적 공여국으로 꼽히며 경제위기와 고령화 등의 내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ODA규모로는 세계 5위안에 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경제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본 ODA는 ‘열린 국익’이라는 뚜렷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여타 공여국과 구별되는 일본 ODA만의 ‘하드웨어 인프라구축’, ‘아시아 집중 지원’, ‘유상원조 중심’ 등의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저개발국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체 ODA예산 중 7.8%(2010년 기준)를 지원하며 미국과 함께 농업분야 절대적 공여국으로 꼽히며 상당한 규모로 농업분야 ODA에 지원하고 있다. 오랜 공여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어오며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ODA에 대한 연구는 선진 공여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양적·질적 ODA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본 내용은 OECD자료와 일본국제협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농림수산성 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tmddms7777@gmail.com, 02-3299-4253).

1)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이며,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개발원조’를 ‘개발협력’ 또는 ‘ODA’, ‘원조’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일본 ODA의 동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농업분야 ODA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개발협력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 개발협력력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조직과 절차 및 제도 등의 체계, 정책과 전략, 그리고 실적에 대한 조사를 정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개발협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연왕

2.1. ODA의 배경 및 목적

일본은 1954년 콜롬보플랜(Colombo Plan)²⁾을 계기로 기술협력 중심의 ODA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시기 일본 ODA는 전후배상의 의미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협정과 배상원조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저리의 유상차관형식의 원조와 배상외교에서 비롯하여 전후의 피해국가에 대한 외교적 관계개선을 위한 도구로써 ODA가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활용되었다³⁾(Lancaster, 2010). 경제협력의 틀 안에서 시작된 일본의 ODA는 국제사회로부터 상업주의적 경제원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일본 ODA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고, ODA정책 및 전략 그리고 원조형태, 협력대상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1 일본의 공여역사

구분	시기	ODA기조
제1기	2차 세계대전 이후 ~ 1960년대 초반	일본의 수출시장 확대와 중요 원자재 확보를 통한 경제이익 중시 - 아시아 중점 지원
제2기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중반	일본 경제의 장기적 이익중시 - 상호원조 전제, 유상원조 중심, 권역 다양화
제3기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개도국 발전을 통한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의 중요성 인식 -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의 노력하에 인프라개발, BHN, 인재양성 원조
제4기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국제공헌과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 중시 - 양적 확대를 통해 세계 제1의 원조공여국(1989년)

자료: 강철구, 홍진이(2009) 참고하여 필자 재정리.

2)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협동적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약.

3) Needing to recover itself, Japan "organised itself to provide those reparations to benefit not just the recipient country but its own business community" (Lancaster 2010).

국제사회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일본 ODA는 원조의 순수성(good intention)과는 구분된 일본만의 ODA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Lancaster, 2010), 일본 ODA 체제는 분산형, 다부처제의 다원화된 구조로 되어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관료주의적 요소가 원조 실시체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OICA, 2011). 또한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일본의 공여역사를 통해서도 일본 ODA는 경제 지향적 목적이 기저(underlying)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ODA의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때 ODA 목적성을 구분하여 보다 정당한 ODA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ODA는 인도적 목적 외에 다양한 공여 목적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여국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략형 원조’국은 국제관계와 자국의 안보유지 등 정치·외교적 목적이 우선이 되는 유형이고, 둘째, ‘상업형 원조’국은 무역관계, 시장개척, 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이 중요기준이며, 마지막으로 ‘인도주의형 원조’는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빈곤 퇴치를 고려하여 ODA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Hook, 1998; 정상희, 2010). 일본은 ODA대강과 ODA중기정책에 ‘ODA를 통해 일본의 안정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상업형 원조’의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일본 ODA는 경제성장전략의 도구로서 수출촉진, 개발수입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뚜렷이 설정된 ODA목적성은 일본 ODA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김복희(2002), 정상희(2010)외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단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지원, 아시아 중점지원으로 손꼽히는 일본 ODA의 특징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ODA가 지향하는 목적성에 따라 정책적인 변화를 거듭하며 일본만이 가지는 ODA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경제 하부구조 사업 중심 즉, 다리, 댐, 도로와 같은 인프라 중심의 지원이다. 이는 실상 일본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 확보를 위한 의도와 자국의 경제적 실리가 바탕에 있다. 또한 아시아편중 지원 특징은 경제적 이익측면에서 안정적 자원수급처를 개척하고 시장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원조 이면의 목적성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1960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후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차츰 국제사회로부터 공여국으로서 일본의 역할과 책임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다원화된 개발협력체계에 대해서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DAC의 동료평가(2004)에서는 무상원

조 운영에 대해서 원조전략과 정책개발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권고 받았다. 따라서 일본은 다양한 시도와 개혁을 통해 정책적으로 실용주의적 노선 이면에 ODA의 양적 확대를 통한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2. ODA의 일반연왕

2.2.1. 세계

일본은 최대 공여국 지위에도 불구하고 ODA/GNI비율은 0.20%⁴⁾(2010년 기준)로 DAC국가 중 20위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지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책임감 있는 공여국으로서 역할확대의 부담과 함께 자국실리 및 경제협력보다는 원조 목적성에 부합하는 선한 원조로의 변화를 권고 받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내부적 반성에 기인하여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와 체계의 틀을 발전시켜가며 2008년에는 ODA 질적 제고를 위한 대대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일본 개발협력 체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이원화된 구조의 문제를 갖고 있었으나 체제개혁을 통해 통합을 이루었다. 따라서 일본의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절에서는 추진 체계, 법, 제도, 절차 순으로 일본의 ODA개혁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ODA는 유·무상 이원화의 불안정한 체제를 국제협력기구⁵⁾(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로 단일화하여 체제를 완비하였다. 외무성(MOFA), 통상산업성(MITI), 재무성(MOF), 경제기획청(EPA)등의 부처가 전문화된 역량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2004년 DAC의 동료평가에서 무상원조 운영에 대해 원조 전략과 정책개발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2006년 다자차원의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협력국이 외무성내에 설치되고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의 개정안이 2008년에 발효되면서 신JICA(the 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한 통합과 일원화를 이루게 된다<표 2 참조>.

일본정부의 ODA운영체제 일원화의 노력으로 2006년 JICA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새롭게 New JICA(新JICA)가 세워져 기존의 유상원조 담당의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기능과 기술협력, 외무성의 무상원조를 모두 총괄하는 개발원조 집행기관으로 JICA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개혁 이후 신

4) JICA(2011).

5) 본고에서는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국제협력기구’ 또는 ‘JICA’로 축약하여 표기한다.

표 2 JICA 체계 개혁 전후의 체계 및 역할

개혁 이전		개혁 이후 신JICA ODA체계 및 역할
조직	역할	
외무성	- ODA 정책 총괄 및 조정 - 무상원조 관리 - JICA, JBIC 감독 - UN기구 협력업무	
JICA	- 기술협력 - 외무성의 무상원조 업무 지원	
JBIC	- 차관, 유상원조 담당	
MOF(재무성)	- JBIC 자금관리 - 국제금융기구 협력 업무	
통상산업성(MITI), 경제기획청(EPA)	- 무역과 투자, 아시아 경제협력관련 업무	
기타 정부부처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총무성 등)	- 초청연수 프로그램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 기술원조	
민간부문	- 정책협의, 프로젝트 수행 - 연구, 정책 조언 등	

자료: OECD(2004), JICA(2010)

JICA의 조직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1 참조>.

ODA전략 부분은 해외경제협력회의를 통해 총리 주도하에 관방장관, 외무성 장관, 재무성 장관, 경제산업성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정책기획부분은 2006년 외무성의 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 아래 국제협력국이 설치되어 종합외교정책국, 지역국이 협력하여 외무성의 기획입안 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직 개편이 되었다. 특히, 2009년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2006년 설립)의 국별원조전략(기획)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원조정책협의부서(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coordination division)를 새로이 설립하여 무상⁶⁾과 유상⁷⁾ 그리고 기술협력⁸⁾ 원조유형의 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별, 분야별 맞춤형 원조계획이 가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ODA시행부분에서 가장 큰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신JICA체제로 유·무상 자금협력이 통합되고 외무성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외무성 ODA부서와 일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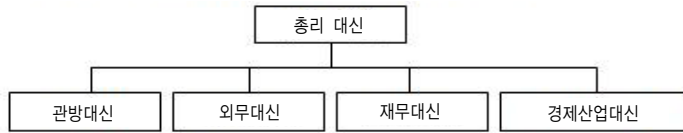
6) 무상자금협력: 변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합의된 특정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공여하는 형태로 주로 저개발국과 재정이 나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보건 및 의료등의 기초생활분야, 기초교육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룬다. 부상자금협력은 일반 프로젝트 무상자금협력과 일반대중·인간안전보장, 무상자금협력 등이 실시된다.

7) 유상자금협력: 저리의 장기변제의 완화된 조건으로 개발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엔차관이라고 통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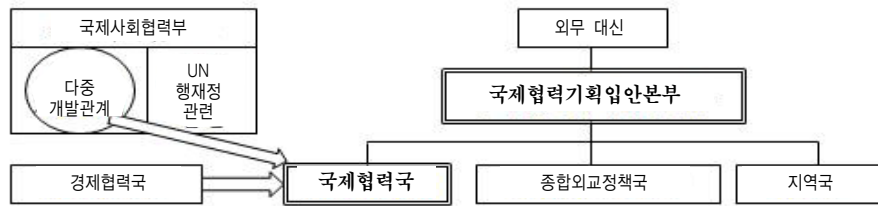
8) 기술협력: 저개발국의 국가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대책, 보건 및 의료, 교육 등의 기초적인 기술분야와 고도의 통신기술, 지진 및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긴급원조 등에 걸쳐 다양하게 지원되며 주로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으로 실시된다(MOFA, 2011).

그림 1 신(新) JICA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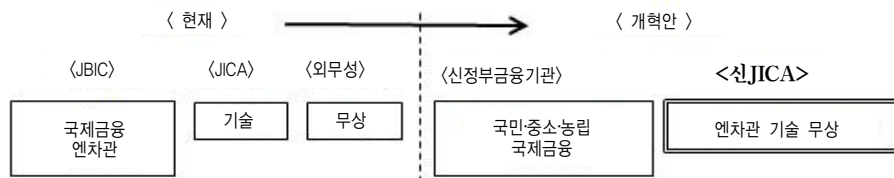
전략부분 : 총리 아래 각료급의 「해외경제협력회의」 설치



정책의 계획 및 입안부분 : 외무성의 기획·입안능력을 강화



시행부분 : 엔차관, 무상, 기술협력의 시행을 JICA로 일원화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Web Site.

제협력은행(JBIC)을 단일화하여 JICA가 무상과 유상원조, 기술협력 지원을 총괄하고, 외무성은 원조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다만 지진 피해 등에 대한 긴급원조 등 신속,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무상원조(1,000만 엔 미만)의 경우 외무성이 지속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일본의 특징적인 조직체로 국가별 ODA TF(Task Force)를 들 수 있으며, 국가개발전략 수립 및 사업실행 시 현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현장중심의 ODA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이래로 7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ODA를 위한 기반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전략, 정책, 시행 부분에 대한 외무성 기구의 조직개편과 신JICA의 체계개혁은 일본 ODA의 전략적 정책적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표 3 참조>, JICA는 2003년 독립기관으로 분리된 후 외무성의 1차, 2차 중기목표에 따라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08년 10월 통합에 이르렀다. 개혁의 주요 목표는 현장중심운영, 인간안보, 효과성 및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는 기초 아래 이루어졌다. JICA의 조직은 총 24부 5실

표 3 JICA의 조직 개혁 과정

개혁목표		내용
1차 개혁 1차 중기목표(2003-2007)	- 현장중심운영 - 인간암보 도입 - 효과성,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 본부구조조정/팀제도 도입 - 신인사제도 도입 - 현장사무소 권한이양 추진
2차 개혁 2차 중기목표(2007-2012)		- 국내사무소 조직검토 - 운영체계 간소화 - 통합최종준비 - JICA 국내사무소 철수 - JICA교육센터 구조조정

자료: JICA(2011) 2011 annual report.

2국 1연구소 체제로 개편되었고 새로이 지역국, 주제기반의 부서로 재조정 되었다. 기존의 아시아(2개국)지역국에서 세분화하여 동남아시아, 대양주,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로 나누어 편성하여 각 지역국은 현지 지역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기능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장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전반적으로 신JICA의 개혁은 원조방식의 통합으로 집행효율을 높이고 일본 ODA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JICA를 통해 유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총괄하게 되어 분산되어있던 원조 기능이 통합되고 자금협력사업과 기술협력의 연계사업 등의 무상통합지원의 유연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원조시행의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JICA를 중심으로 외무성과 13개 부처가 조율되고 총괄적 ODA집행조직을 통해 원조정책 운용과 집행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축되며,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 통합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예단하기는 이르며, 긍정적 시너지 효과 이면에 여전히 JICA 내부적으로 유상과 무상의 조화와 협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표 4 ODA 관련 제도

시기	내용
1992	- ODA대강
1998	- 중앙성청등개혁법 제정
1999	-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 확정
2003	- ODA대강 개정 - 1차 중기목표(The first Mid-term Objectives)(2003-2007)
2005	- 신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Medium-Term Policy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6	- JICA법 개정
2007	- 2차 중기목표(The Second Mid-term Objectives)(2007-2012)
2008	- 2차 중기목표 개정

자료: JICA, 2011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조직개편을 통한 일본의 ODA개혁은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은 ODA법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ODA대강(ODA Charter)과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 JICA법 등이 있다. 주요 ODA제도와 개혁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개발협력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1992년 ODA대강(ODA Charter)의 제정 이후 1998년 21세기를 향한 ODA 개혁 간담회를 통해 일본정부는 ODA개혁안 발표하고, 1999년 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의 통합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발족하여 차관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개발원조에 관한 ODA중기정책(이하 ODA중기정책)’을 확정하고 2000년에는 국별원조계획(Country Assistance Policy, CAP)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등 ODA 전략 및 정책적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이후 2002년 ODA개혁 심의위원회의 ODA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정과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2003년 ODA대강을 개정하고 ODA질적 개선을 목표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UN의 새천년개발목표), 평화구축, 인간안보 등의 새롭게 변화하는 ODA패러다임을 담은 개정된 ODA대강을 기반으로 2005년 새로이 ODA중기정책을 수립한다. 또한 2006년 외무성 내 국제협력국을 설치하여 JICA법을 제정하는 등 외무성을 비롯한 ODA시행기관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표 5 일본 ODA대강의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개정 전(1992년)	개정 후(2003년)	2010년
주요원칙	유엔헌장원칙 준수하여 3가지 사항 고려 ODA지원 1. 개도국 요청사항 2. 경제사회현실 3. 양자관계	인간안보 개념	
중점과제	- 빈곤 - 지속적 성장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처 - 평화구축	- 국내외 정세 감안하여 빈곤과 평화구축을 중심으로 신축성 있게 지원 - 중점과제 중 빈곤퇴치가 우선적 과제로 명시	- MDGs달성 - 평화구축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시행방안	- 무상원조, 유상원조, 기술원조 간 조화추진 - 국제기구, 개도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NGO협력) - 일본의 개발경험 및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 개발경험 활용,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 최대한 활용 - 각 개도국의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 개발 하여 전파	- 중기프로그램 및 국별 프로그램 확정, 유·무상 및 기술원조 집행 - 관련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외무성이 조정역할 수행 - 민간참여 확대 및 홍보강화 - 사업에 대한 평가 강화 및 부패방지 대책 강구	- 개도국과의 상호작용 확대 - 민간기업 연계강조 - 선택과 집중 - 구체적 성과지표 설정 및 공포 - 프로세스개선 - 현지 ODA TF강화 - 평가의 독립성 강화 - 신흥원조공여국과의 협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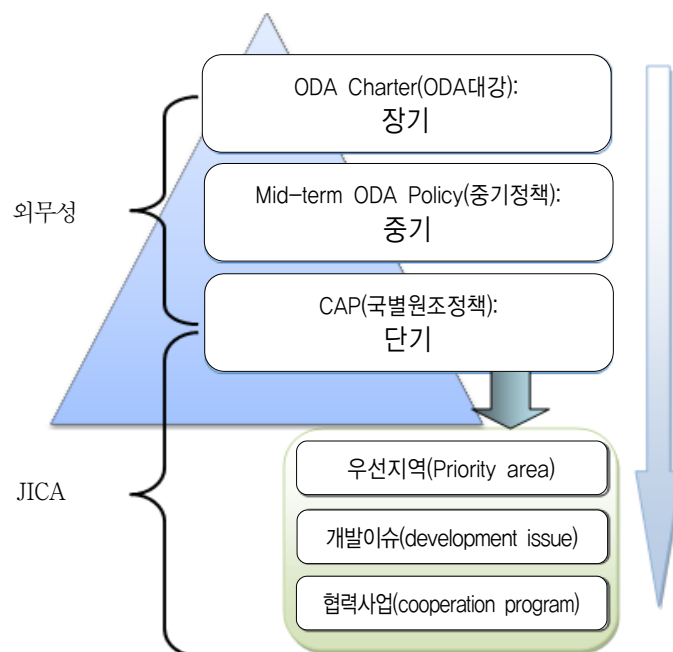
자료: 정상희, 2010.

주요한 ODA제도로서 ODA대강의 개혁 전후 내용을 비교한 정상희(2010)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원칙, 중점과제 및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인간안보에 대한 강조, MDGs 달성을 목표로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ODA 정책방향(ODA scheme)의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ODA 정책기조가 기저에 있어 자조와 실리주의 목적에 따라 여전히 ODA의 본래목적보다 국가이익이 앞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⁹⁾.

2.2.2. 정책 및 전략

일본 ODA정책은 ODA대강에 준하며, 2003년 개정된 ODA대강에 따르면 ‘이 대강을 바탕으로 ODA 중기정책이나 국가별 원조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준한 ODA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도모’한다고 명시한다. 외무성 주관으로 ODA대강¹⁰⁾의 장기정책, 중기정

그림 2 일본 ODA 정책 구조



자료 : 일본 ODA 백서(2011); ODA evaluation guideline(2011)를 참고하여 필자 재작성.

- 9) 궁극적으로 일본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HRD, 인프라 외에 새로운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가의 이익을 ODA목표로 명시함 (정상희,2010).
- 10) 일본은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지 않고, ‘일본 ODA대강(신 ODA대강)’을 통해 민주주의, 거버넌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만 밝힘(Eyinla, 1999 재인용)

책, 국가별 원조정책(CPA)의 단기정책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JICA는 단기 국가별 원조정책을 수립하여 개발목표(중기 및 세부목표)를 우선지역과 개발이슈에 따라 국별, 분야별 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한 최근 외무성 보고를 통해 일본의 ODA 정책을 단계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발원조의 상위개념은 개발협력과 국제협력이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본을 포함한 세계 공동의 이익추구가 ODA의 목표이며 정책 방향임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ODA초기의 경우 아시아 지역 중심의 배상외교를 통한 지원이 중점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활발히 국제사회에 지원을 늘려가며 활동하던 시기로 1980년대 말까지는 양적확대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저개발국 지원이 강조되었다. 본격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에 따라 ODA와 민간자본의 잉여, 무역의 삼위일체를 정책방향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ODA 질적 제고를 위한 개혁이후 ODA대강과 중기정책을 골자로 한 정책변화는 보다 전략적으로 글로벌이슈를 반영하며 발전하고 있다.

먼저 ODA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ODA기본이념, 원칙, 중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공헌을 통해 일본의 안정과 번영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지원, 인권의 안전보장, 공정성의 확보, 일본의 경험과 지견의 활용, 국제사회에서의 협조와 연계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침 하에 빈곤사각, 지속적 성장, 평화구축 등의 사항을 중점과제로 규정한다. 특징적으로 원조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 전체의 일체성과 일관성 있는 원조정책의 입안을 강조하며 중기정책과 국가별원조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부처간의 연계와 정부와 실시기관간의 연계, 정부협회의 강화, NGO 등의 원조 관계자와의 연계를 중시하며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ODA 중기정책은 2003년 개정된 ODA 대강을 기반으로 2005년 재검토를 거쳐 새롭게 신 ODA 중기정책이 수립되었다. 중기정책은 ODA대강의 원칙과 중점과제 및 우선과제, 시행방안에 대한 3~5년의 중기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실시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수원국의 개발수요(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수요의 조사·분석의 강화, 원조정책의 입안과 검토의 중요성 강조, 협력국과의 제휴강화, 투명한 정보공개와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개발협력정책 중 단기정책은 JICA의 주도하에 국별협력정책(CAP)을 수립하고

개발협력목표(중기 및 세부목표)를 우선지역과 개발이슈에 따라 국별, 분야별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별협력정책은 협력대상국에 대한 세부개발전략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수요 등을 포함하는 전략문서로 볼 수 있으며 매년 5년을 주기로 수정된다. 2009년 이래로 28개 국가의 국가별 원조프로그램(Country Assistance Programs)이 수립되었으며, 2010년 ODA검토보고서¹¹⁾(ODA Review Final Report)를 통해 우선지역과 국가방침을 더 구체화하고, 국가별 원조정책에서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을 위한 지원방침을 강조하고 정책과 계획의 일관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정책과 전략문서는 아니지만 최근 일본의 ODA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으로 ODA검토보고서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ODA 변화는 2010년 오카다 외무대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ODA검토보고서를 통해 ODA대강의 수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지금까지 일본의 ODA에 대한 반성과 왜 ODA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차 검토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어 반세기의 공여역사의 실제적인 도전과제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된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일본의 국제협력가운데 ODA를 개발협력으로 규정하고 그 이념을 열린 국익의 증진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ODA의 당위성을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념을 실시하는 중점분야를 세 가지로 집약하여 빈곤 삭감과 평화에 대한 투자를 통한 MDGs달성에 대한 공헌,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 등 ODA대강 및 중기정책에서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을 재차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정책 및 전략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정책입안에 대한 개선안과 적극적 홍보와 개발재원확보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있으나, 실제적 시행주체인 JICA에 대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본 ODA의 정책, 전략적 측면 그리고 실행측면까지 아우르는 도전과제와 개선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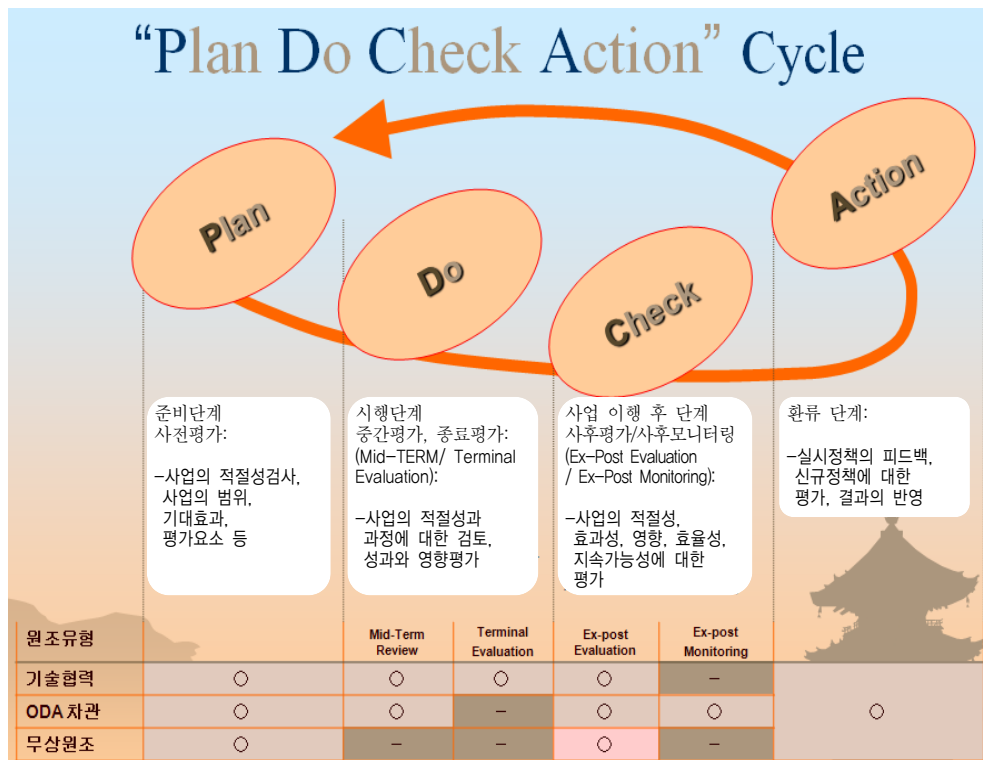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첫째, JICA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JICA는 자체연구소를 활용하여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향후 5년간 예비사업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개발과제별 사업을 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과 협의하여 국가별 협력전략에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JICA의 추진 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개발협력

11) 2010년 6월 외무성주관의 OD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최종보고(ODA Review Final Report: Living in harmony with the world and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는 오카다외무대신의 지휘하에 ODA를 보다 전략적,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시작하였다.

사업 추진 프로세스의 신속화와 PDCA사이클¹²⁾을 철저히 구축하여 현지실시체제를 정비하고자 한다. 특히 엔(Yen)차관 집행 프로세스의 경우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하고, 협력대상국이 익숙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부분은 기타 공여국과 차별화되어 있다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PDCA사이클 <그림 3>에 대해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등의 환류(feedback)를 사업계획안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 실시를 위해, 프로그램접근(Program-based Approach, PBA)의 강화와 결과중심(Result-based Approach, RBA)의 접근을 중시하며 한정된 재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JICA는 국가별로 작성되는 개발협력전략의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이는 국가마다 중점분야와 협력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간결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선별

그림 3 일본 ODA실행체계(PDCA 사이클)



자료: JICA, 2012 "New JICA and Project Evaluation".

12) 2005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PDCA 사이클'은 기획(Plan)과 정책입안(Do), 평가(Check), 결과 반영(Action)까지의 실행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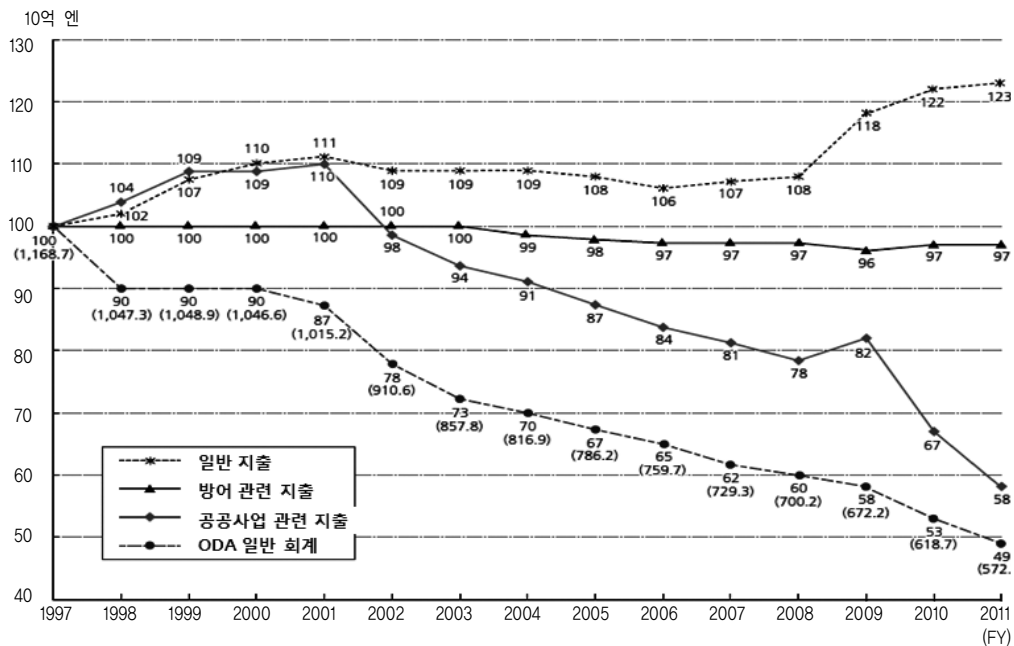
하여 이에 집중하는 국별협력전략과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발굴 방식은 기존의 협력대상국 요청위주의 사업 발굴이 아닌, 협력대상국과의 정책협의를 토대로 개발협력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방식은 유·무상협력 및 기술협력의 원조방법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시체계정비는 JICA 뿐만 아니라 현지실시체제의 정비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현지의 현장협의체의 활용을 통한 현장주의강화를 개선안으로 제시한다. 외교공관, JICA, JBIC의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협의체(ODA Task Force)의 기능강화는 수원국의 정확한 수요(Needs)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 원조정책 입안과 수단에 대한 정책을 본부와 협의하는 등 정책적으로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ODA시행을 위한 현장협의체의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2.3. 실적

일본 ODA 예산은 최대 집행기관인 외무성을 포함하여 10개의 성과 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외무성의 ODA예산은 국제협력기구(JICA)가 담당하는 무상협력예산과 국제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림 4 일본 ODA 예산 추이 - 외무성(MOFA) 외교백서 2011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ODA배증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ODA 증액 목표 설정하고 적극적인 계획 하에 ODA 확대를 실천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잡으며 꾸준히 ODA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2000년 이후 국내 재정 악화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일본의 ODA는 내부의 정치·경제의 영향 하에 ODA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ODA예산은 국내 정치·경제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며 아래 <그림 4>를 통해 최근 10년 간의 ODA예산 삭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6>을 통해 2010~11년 ODA예산을 살펴보면 외무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청의 ODA예산 또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살펴보면 2010년 보다 2011년에는 조금 간극이 해소되고 있다. 2011년 JICA를 통한 차관지원의 예산 하락 폭이 다소 크나 그 외 무상협력의 경제개발지원 및 기술협력은 전년대비 1~4%대

표 6 정부의 부처별 ODA예산(일반회계)

단위: 백만 엔, %

구분	2010 예산	2011(예산)	2010/2011(%)
내각본부 (National Police Agency)	27	14	-48.5
금융청 (Financial Services Agency)	119	105	-12.2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773	721	-6.7
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236	133	-43.5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13,378	416,989	0.9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132,934	94,663	-28.8
문부과학성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33,132	28,697	-13.4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8,599	6,685	-22.3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956	3,482	-12.0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3,126	19,072	-17.5
국토교통성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471	360	-23.6
환경성 (Ministry of the Environment)	1,994	1,827	-8.4
합계	618,746	572,749	-7.4

자료: 외교백서 MOFA, 2012.

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 다자원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담금 및 의무적 거출금에 대해서는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지속적으로 ODA예산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OECD/DAC의 제40회 고위급회의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구국가들의 ODA 규모 증대에 대한 몬테레이 협약 준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일본은 규모의 확대보다 효과성에 대해 강조¹³⁾하였는데, 이는 일본 내부적 갈등요인 고령화, 재정적자 등으로 ODA양적 확대에 대한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ODA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의 ‘실리주의 원조’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배상외교에서 시작된 1960년대부터 아시아 집중지원 공여국으로서 일본의 ODA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두드러지며 80년대 후반은 40% 넘게 지원되었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30%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MOFA, 2010).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분야별 지원추이를 살펴보면, 무상협력지원은 공공사업(47.2%), 농림수산분야(9.7%) 순이며, 기술협력은 기타 분야를

표 7 일본의 일반회계 ODA예산⁴⁾

단위: 억 엔(Mi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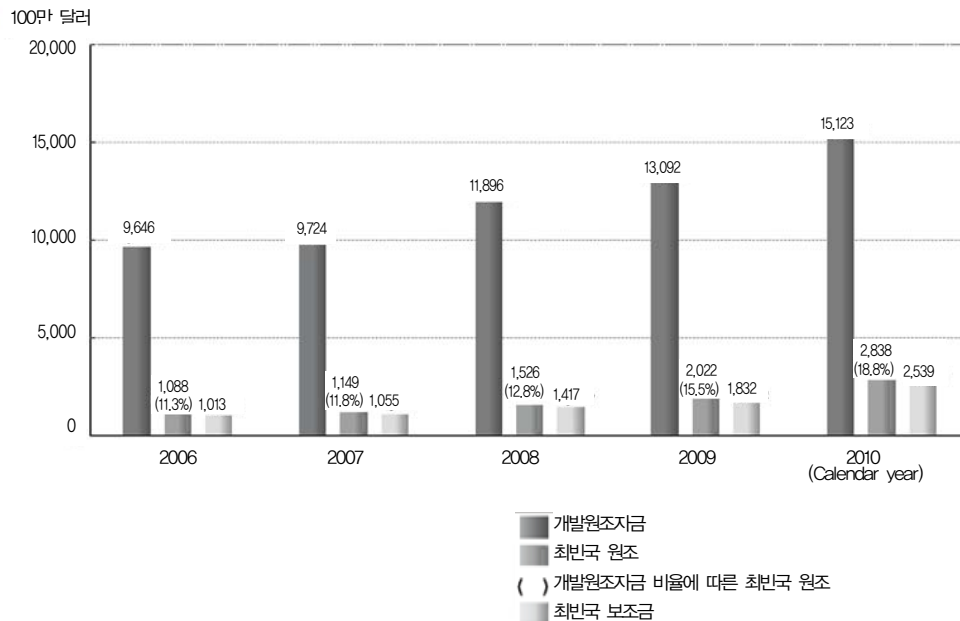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1년	
	예산	2009/2010 증감비율	예산	2010/2011 증감비율
가. 증여	514.3	-5.6	508.3	-1.2
1. 양자 무상원조	425.4	-7.7	410.3	-3.5
1) 경제개발 지원과 기타	154.2	-4.2	151.9	-1.5
2) 기술협력	269.7	-7.2	256.9	-4.7
3) Transfer to Trade Reinsurance Special Account	1.6	-33.3	1.6	-
4) JICA 예산 (loan aid section)	-	-100.0	-	-
2. 다자기관 출연 및 출자	88.9	5.6	98	10.2
1) UN 및 기타 다자기구	61.1	4.5	68.3	11.9
2) MDBs 외 기타	27.9	8.3	29.7	6.5
나. 차관				
JICA(loan aid section)	104.4	-18.0	64.4	-38.3
총액	618.7	-7.9	572.7	-7.4

자료: MOFA, 2011.

13) OECD 위원회 리포트, 2002.7.(개발원조위원회- "OECD/DAC, 제40차 고위급회의 개최").

14) 10개성과 2개기관의 ODA예산임.

그림 5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추이



제외하고 공공사업과 행정지원 그리고 농림수산분야 지원이 두드러진다. 또한 유상협력은 경제인프라분야의 운송(41.1%), 가스 및 전기(26.7%)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며, 농림수산분야는 2.6%를 차지한다.

일본 ODA의 지역별 추이는 일본의 ODA초기 목적성과 관련이 깊다. 평균지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94.4%가 아시아에 지원되었고,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권역별 다양화를 시도하였지만 2010년 53.1%를 기록하며 여전히 아시아 집중지원의 기조를 살필 수 있다. 반면 1990년대까지 한 자리 수에 머물렀던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이남지역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MOFA, 2011). 또한 지속적인 ODA예산 감축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전략,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기존 1990년대 152개국의 협력대상국을 2000년대는 140여 개국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기준 145개국에 지원하고 있다.

<그림 5>를 통해서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무상협력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06년 1,088백만 달러에서 2010년 두 배에 달하는 2,838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총양자 원조총액 대비 비율도 2006~07년까지만 해도 11%내외였으나 2010년 18.8%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농업분야 ODA 연왕

3.1. 농업 ODA 일반 연왕

3.1.1. 농업 ODA 체계

농업분야 ODA는 주로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개발협력사업은 부처 고유 ODA예산으로 추진된다. 신 JICA체계에서는 기존의 기술협력사업 외에 외무성으로부터의 무상자금협력 사업과 국제협력은행(JBIC)으로부터의 유상자금협력¹⁵⁾을 승계하여 JICA가 담당하고 있다. 단 기존의 13개 성·청이 담당하던 기술협력사업¹⁶⁾은 각 성·청의 특성 및 축적된 노하우 활용 필요에 따라 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농림수산분야의 주요 부처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은 기관 간 협력이 긴밀하여 외무성의 사업¹⁷⁾에 농림수산성이 적극 참여한다.

농림수산분야 ODA를 시행하는 기관은 JICA, 농림수산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JICA는 양자원조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협력(T/C)과 유상원조 그리고 무상원조를 지원한다<그림 6 참조>. 신 JICA이후에 JICA가 JBIC¹⁸⁾의 유상원조를 통합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분야별 프로젝트 사업을 유·무상 그리고 기술협력 연계사업으로 새롭게 발굴해가려고 노력하며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업분야와 같이 농림수산성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의 ODA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JICA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야별 각 부처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지역에 대한 통합지원전략 등이 부재하여 이는 JICA가 대상국가에 대한 국가지원전략(CPA)에 기초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농림수산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성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외에도 JICA로부터 위탁 받아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파견조사와 같은 전문가 활용의 개발조사는 민간기업 및 단체, 정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농업분야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JICA, 외무성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JICA와 정부부처간의 분절 및 중복사업의 갈등은 야기하지 않는다.¹⁹⁾ 농림수산성은 주로 JICA의 기술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실행하거나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JICA는 이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신청 사업을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매

15) 엔차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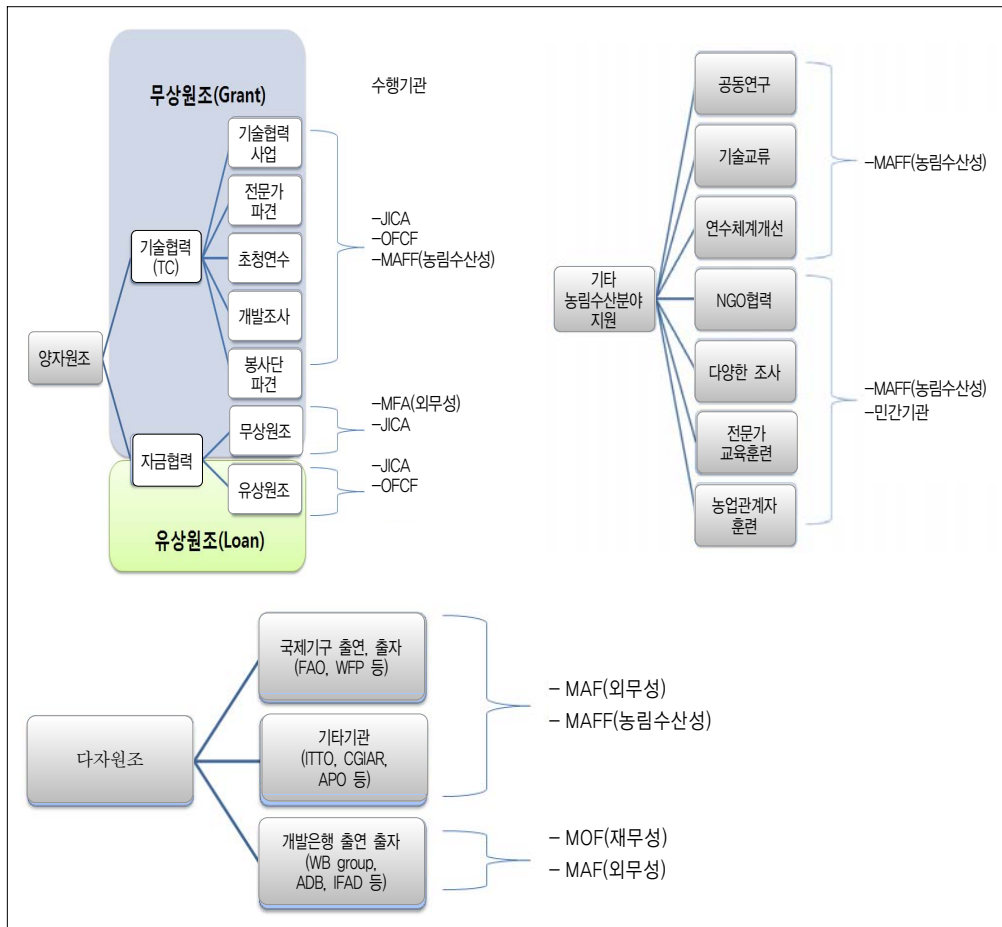
16) 기술협력 총 사업의 약40% 차지, 2008년 기준.

17) 대부분 JICA사업.

18)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9) 2012년 4월 JICA, 농림수산성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근거함.

그림 6 농림수산업 ODA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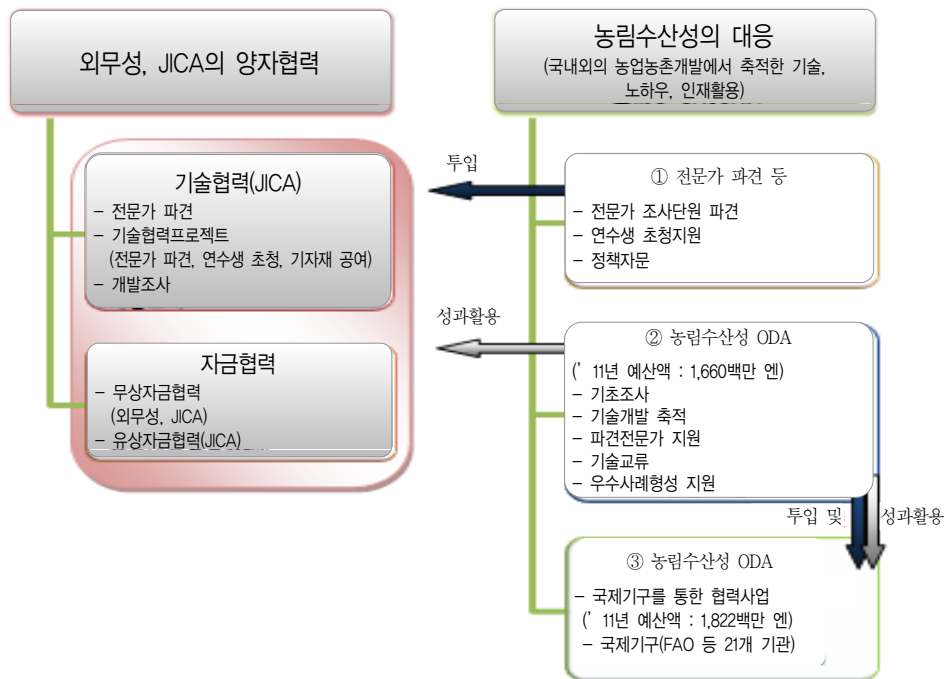


자료: JICA,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참고 필자 작성.

뉴얼을 작성하는 등 실제 사업수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외무성은 재무상의 협의와 사업관련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7 참조>.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업의 개발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외무성, JICA와는 별도로 수원국 개발조사, 연구 성과 정리 등 JICA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정리 등의 연구사업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전문화된 분야의 지원으로 특화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①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정책자문 등의 기술협력사업과 ② 농림수산업의 ODA 위탁사업(기초조사, 기술개발성과정리, 전문가파견, 기술교류 등), ③ FA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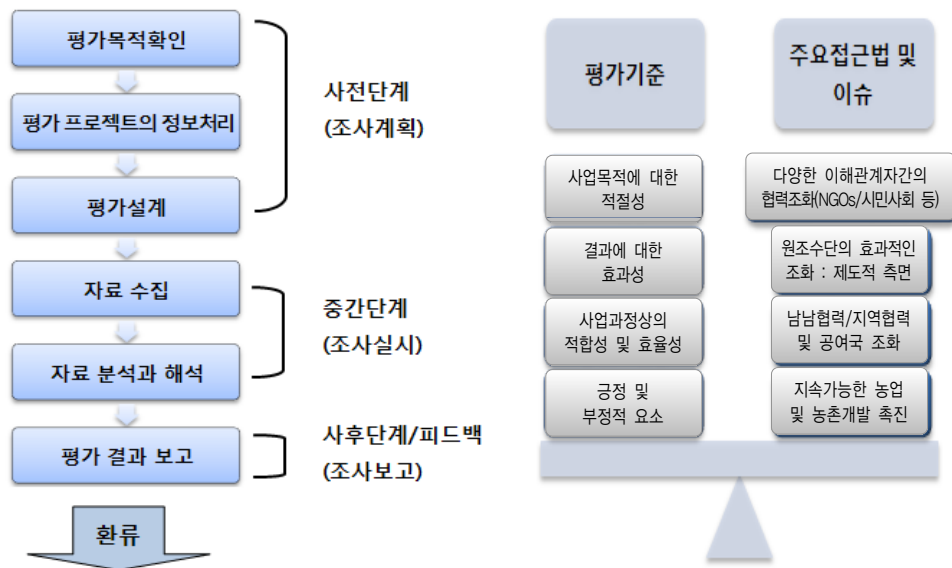
그림 7 농림수산물 ODA체계



일본의 경우 섹터별 개별 추진방식 및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 농림수산물분야 ODA의 추진방식 및 절차는 실시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농림수산물분야는 주로 외무성(JICA)의 재원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농림수산성의 부처 고유예산을 근거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별도 체계에 따르게 된다. 먼저 JICA의 농업분야 사업추진체계는 국가별 지원전략(CPS)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지원방향과 중점지원방향을 정하고 대상국에 따른 ① 지원전략(Assistance Strategy) 수립, ② 사업 형성, ③ 심사, ④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5단계에 걸쳐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한다. 농업분야 ODA 실시체계는 ‘PDCA 사이클’과 동일하며, 사전단계(계획, 조사) → 중간단계(실시) → 사후단계(평가) → 피드백의 시기별 단계를 가진다.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및 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절차<그림 8>과 OECD/DAC에서 권고하는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술적인 평가방법으로 분야별 평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JICA의 개별 프로젝트 평가는 이에 따른다.

그림 8 농림수산업 분야 평가 절차 및 평가프레임



자료: JICA, 2011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최근 2011년 4월에 발표한 ODA 평가 가이드라인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국별, 사업별 프로그램평가는 외무성의 평가기준²⁰⁾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OECD/DAC의 평가기준²¹⁾도 준수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평가의 수준을 달리하는데, 외무성은 정책과 프로그램단계까지를 평가하고 JICA는 보다 세부적인 프로젝트단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4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8 참조>.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JICA는 조직을 개편하고 사업평가그룹, 외부전문가평가위원회 및 평가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JICA의 프로젝트 사업은 평가팀과 프로젝트 사업실행팀이 공동수행하며, 평가검토위원회, 외부전문가평가위원회, 사업평가그룹, 사업부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평가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었는데 1998년 정부기관개혁에 대한 기초법안에도 명시하고 있으며, ODA활동에 대한 평가는 외무성의 책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무성은 연간보고서에 ODA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2010년 ODA검토보고서에서는 평가의 중요성과 개선에 대

20) 정책의 타당성, 결과의 유효성, 프로세스의 적절성.

21)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특히 환류를 통해 계획·입안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평가 절차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9 외무성과 JICA의 평가 범위 및 체계



자료 : MFA, 2007 '농업부문평가' .

3.1.2. 농업 ODA 정책 및 전략

농업분야 ODA정책은 ODA대강(2003)과 중기정책(2005) 및 환경과 빈곤 등 전 지구적 이슈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이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ODA대강은 MDGs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개발과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ODA대강을 기반으로 수립된 중기ODA정책(2005)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ODA시행계획을 더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개발전략(Country Assistance Programs, CAPs), 경제협력프로그램(ECPs), 국가별 ODA TF(Task Force)에 기반한 국가 전략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ODA대강과 중기정책은 JICA(와 JBIC)의 분야별 지원정책 및 전략에 기초가 되며 실제로 국가개발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MOFA, 2007)²²⁾. 특히 중기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과제는 농림수산분야의 목표 및 중점이슈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중기정책의 우선과제인 빈곤과 사회개발, 인적역량강화지원, 식량문제와 환경이슈해결은 농림수산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되어있다. 빈곤감소와 농업·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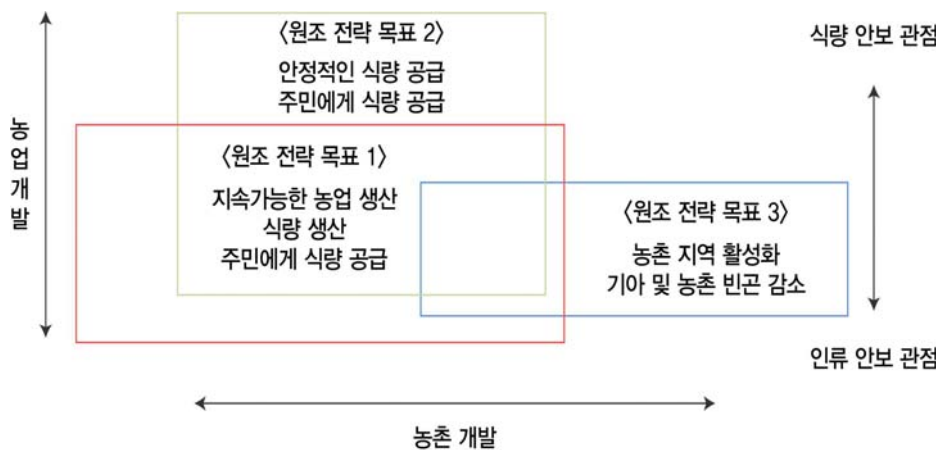
22)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Evaluation of Japan's ODA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

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하위세부목표로 농업생산성개선, 식량안보, 생활환경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ODA 중기정책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농촌개발협력의 정책방향은 개도국 빈곤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업관련 정책 체계 구축지원, 농림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농업 생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 개발, 주민조직 강화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한다.

<그림 10>은 일본의 농업 및 농촌개발지원의 전략적 특징 및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ODA백서(2011)에 따르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강조하고 이는 MDGs의 빈곤퇴치의 달성목표와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안보의 중점기조 또한 농업분야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인류안보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통한 세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분야 협력은 ① 농촌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 ② 농촌지도자와 농업연구자와 같은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③ 농업협동조합의 증진, ④ 농업인프라 개발의 특징을 가진다. 또한 농촌개발 목표는 ① 경제적 역량 강화(농촌소득개선, 농외소득개선, 인프라개발 등), ② 인적 역량 강화(보건과 기초교육 개선), ③ 환경보전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역량 강화, ④ 정치적 역량 강화(중앙행정능력 개선과 지방행정능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세부 중기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농림수산업성 또한 정부의 ODA정책기조에 따라 ODA대강과 중기전략을 따르며 농업분야 ODA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자연재해복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계 식량

그림 10 일본의 농업·농촌개발지원 전략 목표



자료: JICA, 2011.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해결, 재난복구 중심의 지원기조로 농림수산성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일본의 농업·농촌개발의 기본 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안정적인 식량공급, 농촌지역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농업정책체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농업생산네트워크, 유통체계 구축지원, 지역단위 농업생산기술 전파,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분야의 정책 및 전략적 개혁의지와 변화과정을 정리해보면, 정책적 기조는 ODA대강과 중기전략의 큰 틀에 기초하여 협력국에 맞는 국가별 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하는 전략적 계획 하에 발전해왔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 및 전략(policy-level approaches)이 실제 사업(project)에 적절히 반영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2007년 외교부가 시행했던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4개국²³⁾ 사례를 통해 농업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였는지를 ODA규모, 농업생산성 개선, 식량안보 등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의 지속가능한 접근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된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의 접근방식이 부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정책 및 전략은 JICA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국가개발전략(CAP) 및 국가개발전략프로그램(CAIP)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특히 농업 및 농촌개발분야는 보다 종합적이고(holistic)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기반의 ODA TF(Task Force)의 역할 강조와 역량강화를 통해 CAP의 개선을 위한 활용 뿐 아니라 인간안보측면에서의 인적역량강화와 협력의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1.3. 농업 ODA 실적

농림수산분야는 양자 그리고 다자지원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양자원조는 외무성 재원의 JICA의 무상협력과 농림수산성의 기술협력, 다자원조는 외무성기반의 FAO²⁴⁾, WFP²⁵⁾, CGIAR²⁶⁾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금과 농림수산성의 출연금을 통해

23) 태국, 방글라데시, 가나, 페루.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형태, 그리고 JICA와 농림수산성의 차관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표 8 참조>.

표 8 농림수산분야 ODA 프로젝트(유형별 및 기관별)

구분			프로젝트 내용
증여 (양자)	무상협력	외무성(JICA)	- 일반프로젝트형식의 무상협력 - 수산분야: 수산관련 산업과 관련된 경제사회개발 지원 - 식량원조 -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 지원(Grant Aid for Underprivileged Farmers)
	기술협력	외무성(JICA)	- 인적자원개발에 기반한 프로젝트 - 봉사단파견 - 전문가파견 - 개발조사 - 사업평가 등
		농림수산성	- 글로벌 식량증산과 투자 촉진 -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 - 산림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에 대한 지원 -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지원
차관 (양자)		JICA	- ODA 일반예산에서 자금지원 형태로 지원: 차관 프로그램
		농림수산성	- 수산협력 차관지원
다자 기구		외무성	- FAO, WFP를 통해 전 지구적 식량문제 등 빈곤퇴치를 위한 지원 - CGIAR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 기타 UN기구 및 다자기구 지원
		농림수산성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World Food Programme (WFP),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ITTO), Southeast Asian Fisheries Development Center (SEAFDEC), Mekong River Commission (MRC), umbrella organizations of the Contributions to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ecretariat,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STD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United Nations University, 글로벌식량안보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등 지원

주 : 프로젝트 내용은 농림수산분야 사업에 한정하여 외무성(JICA)과 농림수산성의 사업만을 필자 임의 기준으로 정리함.
자료 : MOFA(2011).

2011년 외무성의 외교백서에 따르면, 외무성은 JICA를 통해 일반프로젝트 형식의 무상협력지원과 식량원조 및 수산분야에 프로젝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은 외무성(JICA)과 농림수산성의 지원 사업이 구분되어지는데, 먼저 외무성재원의 JICA는 인적자원 개발에 기초한 프로젝트와 개발조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의 지

24)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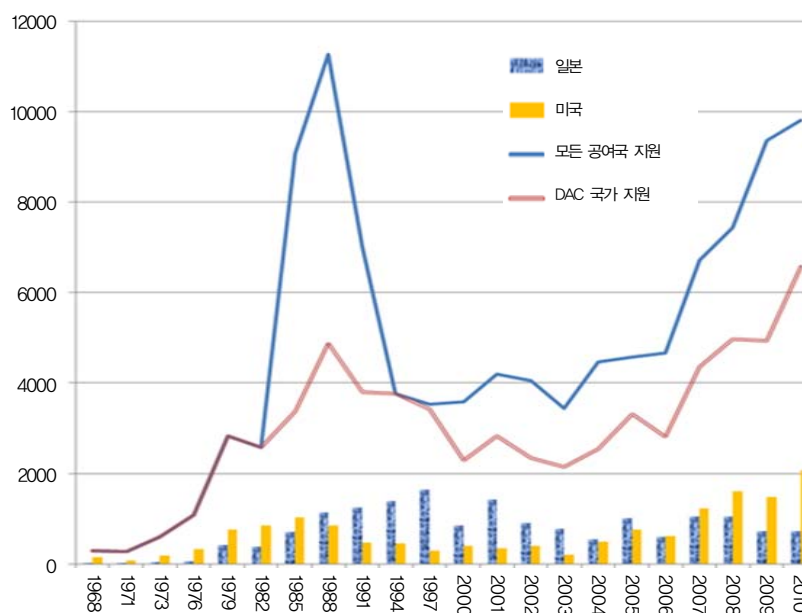
25)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26)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원이 이루어지고, 농림수산성은 개도국의 농림수산분야 개발, 어촌개발촉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① 글로벌 식량증산과 투자 촉진, ②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 ③ 산림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에 대한 지원, ④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지원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차관지원은 일반적인 자금지원협력이며, 다자기구 역시 농림수산 관련 국제기구인 FAO, WFP, CGIAR 등에 대해 식량안보 및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출연 및 출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농림수산분야 ODA 지원을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농림수산분야 ODA의 상당액이 DAC 국가들로부터 지원되며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다가 1990년대 원조피로현상과 함께 전체적으로 공여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당시는 양자 및 다자원조 모두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빈곤층이 만연해있는 농촌에 대한 개발 그리고 MDGs달성을 위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공조의 노력을 다하며 조금씩 증가추세를 지속해가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국제사회의 농림수산분야 ODA 현황



자료: <http://stats.oecd.org/qwids>.

<표 9>를 통해 1980년~90년대는 미국과 일본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면에서 절대적 공여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조가 감소하고 있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

지 일본은 타 공여국과 달리 경제적 번영을 누리며 농림수산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통해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당시 지원총액 뿐 아니라 농업분야에 대한 총 규모 대비 비율도 평균 7%대를 유지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중점지원기조를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국내경기 불황에 의해 ODA지원총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평균 9%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9 일본의 농업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간평균			총액 대비 농업 ODA 비율			총액			총액 대비 농업 ODA 비율		
	1979-81	1989-91	1999-01	1979-81	1989-91	1999-01	2004-05	2006-07	2008-09	2004-05	2006-07	2008-09
호주	13.8	27.3	46.9	2.7	8.5	7.2	85.7	88.7	144.2	6.9	5.6	5.9
오스트리아	-	-	4	-	-	0.9	22.9	23.4	26.2	8.5	6.8	6.7
벨기에	-	0.3	68.1	-	0.3	6.3	119.5	142.1	162.6	12.9	13.3	12.3
캐나다	80.9	80.4	18.3	21.6	5.2	1.1	220.3	127.3	270	12.7	7.2	10.9
덴마크	53.8	38.2	57.6	15.9	9.4	6.8	237.2	92	139.1	15.5	9.8	12
핀란드	-	60.5	3	-	15.4	1	81.4	54.9	116.9	17.7	12.7	14.7
프랑스	131.2	247.9	141.7	7.9	10.5	3.6	189.8	502	535.7	4.9	9.7	8.4
독일	373.5	145	134.1	7.9	3.8	2.9	353.4	474.7	395.3	6.8	7.4	4.8
이탈리아	10.6	150.7	27.6	21.5	10.5	2.2	32.3	57.2	154.8	4.6	7.4	18.1
일본	661.4	736.5	481.1	10.1	7.7	7.3	893.9	1168.8	965.2	9.1	11.2	7.8
네덜란드	223.1	130.7	96.2	19.5	11.4	2.2	191.2	186.1	160.6	7.3	4.6	4.2
노르웨이	37.2	23.4	43.6	14.9	4.4	4	125.5	126.3	253	8.6	6.5	10.2
스웨덴	12.9	244.2	28.7	2.6	13.1	2.7	114.7	146	88.7	7.8	9.1	5.8
스위스	38.6	68.9	62.5	26.6	12.2	7.9	95.2	111.1	120.5	11.1	12.4	13.5
영국	75.9	102.4	107.2	4.7	8.5	2.9	197.4	263.4	506.3	6.2	6.5	7.5
미국	1042.1	549.2	383.2	12.5	6.6	3.1	712.4	1018.7	1555.2	3.6	5.5	6.9

자료 : <http://www.oecd.org/dac/aidstatistics/49154108.pdf>; <http://stats.oecd.org/qwids>.

<표 10>을 통해 2010년 일본의 농림수산분야 실적을 살펴보면, 무상원조 총액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술협력이 21%이며, 유상협력은 약 2.6%를 지원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증여비율이 낮고 엔화차관이 높은 지원 실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고려와 개선의 움직임은 있다. 신ODA대강을 통해 사회 인프라, 농업, 교육 등의 원조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엔화차관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증여나 조건이 완화한 소프트론(soft loan)²⁷⁾이 유연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10 2010년 농림수산업 분야 ODA

단위: 억 엔, %

구분			건수	총액	%
농림수산업	무상원조	농업일반(General Agriculture)	2	23,89	—
		농업기술(Agriculture Engineering)	2	13,17	—
		식량증산 지원(Assistance to Increase Food Production)	9	27,75	—
		산림보전(Forestry Prevention)	2	8,34	—
		어업(Fisheries)	3	26,39	—
		전체	18	99,54	11.0 ¹⁾
	기술협력	농업(Agriculture)	107	53,09	14
		축산(Animal Industry)	14	5,56	1
		임업(Forestry)	31	15,67	4
		어업(Fisheries)	21	8,28	2
		전체	173	82,6	21 ²⁾
	유상원조	농업(Agriculture)	1	50	0.9
		임업(Forestry)	1	88	1.6
		어업(Fisheries)	—	—	—
		농장(Farming)	—	—	—
		전체	2	138	2.6 ³⁾

주 1): 무상원조 전체 총액 대비 농림수산업 분야 비율.

2): 기술협력 전체 총액 대비 농림수산업 분야 비율.

3): 유상원조 전체 총액 대비 농림수산업 분야 비율.

자료 : JICA, 2011 재구성.

일본은 농업분야에 전통적으로 상당한 규모로 지원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상위공여국으로 꼽힌다. 농림수산업 분야의 주요 협력대상국은 ODA전체 실적 규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19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최대 수원국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한국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2위 수혜국으로 꼽힌다. 필리핀과 인도, 태국도 꾸준히 5위안에 드는 중점 수혜국으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보다는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리적 접근성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등의 목적성을 가지고 실리주의적 지원이 었보인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특징적이다.

27) 연화차관(軟貨借款).

표 11 일본 농림수산분야 ODA 10대 수원국

단위: 약정액 기준, 백만 달러

	1965-1969년	1970-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0년
1 인도네시아	334.6	인도네시아	1706.12	중국	10392.02
2 한국	274.51	한국	964.46	인도네시아	10114.18
3 인도	255.11	필리핀	699.36	필리핀	5347.13
4 필리핀	204.31	방글라데시	537.99	인도	5302.43
5 파키스탄	145.44	미얀마	522.45	태국	5209.75
6 타이완	76.96	태국	502.61	파키스탄	2230.43
7 미얀마	53.8	인도	468.46	이집트	2079.93
8 태국	31.4	이집트	409.62	베트남	1972.72
9 브라질	19.13	파키스탄	400.14	방글라데시	1936.26
10 스리랑카	17.78	말레이시아	328.56	스리랑카	1795.28

자료: <http://stats.oecd.org> 필자 재정리.

4.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 농업분야 사례를 통한 과제 도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절대적 공여국으로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경제번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열린 국익’이라는 뚜렷한 정책적 기조에 따라 여타 공여국과 구별되는 일본만의 개발협력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인프라 중심, 아시아집중 지원의 기조 하에 실리주의외교에 입각한 개발협력을 하고 있다. 경제성장전략의 도구로서 수출촉진, 개발수입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정치·경제적 원조방향은 DAC가입 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양적 그리고 질적 제고를 통해 개도국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체 ODA예산 중 7.8%(2010년 기준)를 지원하고 있으며, ODA예산을 하향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 ODA는 여전히 7~8%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 하에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추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야별 지원규모 순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2>와 같이 나타난다. 지원 분야의 변화추이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분야 ODA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OECD/DAC의 분류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분야 ODA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프로그램지원에 해당하는 긴급식량원조와

식량원조/식량안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분야이며, 긴급식량원조는 2005년 2,616백만 달러에서 2009년 3,225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소 하락하여 2,62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지원 규모가 큰 분야는 다부문의 농촌개발을 꼽을 수 있으며, 이어서 농업 개발과 농업용수자원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인프라 중심의 일본 ODA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정우진(2010)의 연구에서 2002년~2007년 일본은 농업용수자원에의 지원규모가 가장 큰 1위국으로 절대적 공여국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공여비중이 큰 상대적 공여 국가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의 ODA규모가 적잖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업에의 지원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ODA는 지구촌 빈곤의 문제를 깊이 고려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이에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구촌 빈곤감소를 위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2 일본 JICA의 농업분야 실적(CRS코드별)

단위: 약정액 기준, 백만 달러 현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긴급식량 원조	2616.2	긴급 식량원조	2233.6	긴급 식량원조	2065.1	긴급 식량원조	3739.1	긴급 식량원조	3225.0	농촌개발	2967.6
2	식량원조/ 식량안보프 로그램	1615.2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538.2	농촌개발	1774.0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778.9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208.1	긴급 식량원조	2626.4
3	농촌개발	1134.0	농촌개발	1528.3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431.4	농촌개발	1544.9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2160.4	농업개발	2470.7
4	농업개발	908.8	농업용수 자원	780.0	농업용수 자원	1090.3	농업용수 자원	1349.2	농촌개발	1967.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844.0
5	농업용 수자원	823.4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59.4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029.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143.1	농업개발	1690.9	식량원조/ 식량안보 프로그램	1657.8
6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77.6	농업개발	729.7	농업개발	973.8	농업개발	867.1	농업용수 자원	895.1	농업용수 자원	1164.3
7	임업개발	484.7	농업연구	463.6	농업연구	755.8	농업연구	779.2	농업연구	478.6	임업정책/ 행정/관리	800.3
8	농업연구	338.7	농업지도	447.1	임업개발	540.0	농업관련 기자재	453.8	식량생산	437.4	농업연구	602.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9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32.5	임업개발	362.6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401.3	식량생산	432.2	임업정책/ 행정/관리	350.1	경제작물/ 수출작물	340.3
10	식량생산	224.6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204.5	농업금융 서비스	383.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96.9	농지개발	340.4	식량생산	285.1
11	농지개발	174.3	식량생산	202.6	경제작물/ 수출작물	282.7	임업정책/ 행정/관리	361.2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305.0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283.7
12	농업관련 서비스	163.1	임업정책/ 행정/관리	188.3	임업정책/ 행정/관리	194.2	임업개발	343.0	농업금융 서비스	265.2	농업관련 서비스	213.5
13	임업정책/ 행정/관리	158.2	농지개발	182.5	농지제도 개혁	177.1	경제작물/ 수출작물	250.3	어업개발	261.7	어업개발	201.7
14	어업정책/ 행정/관리	128.3	축산	170.6	식량생산	172.2	어업개발	199.2	농업관련 서비스	257.5	농업금융 서비스	156.7
15	축산	120.6	경제작물/ 수출작물	136.4	농업관련 기자재	146.2	농지개발	192.0	임업개발	214.5	임업개발	140.2

또한 체계와 제도의 측면에서 일본의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신JICA로 일원화(유·무상 통합)됨에 따라 정책일관성 향상과 개발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다양한 부처의 이익을 내세워 부처이기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체계개선에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처의 분야별 개발경험을 존중하고 개발협력시행기관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는 점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처 간 분산시행의 개선안을 모색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만한 교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역량강화의 실천적 성과를 보여준 ODA TF 활용은 현장화의 도구로써 협력대상국에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지 ODA TF팀을 통한 CAP의 정책수렴과정은 국제사회의 ODA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2003년 실시된 DAC의 동료평가에서 제기된 개발협력 인력강화에 따른 현장에의 권한 분산, 현장의 자원, 전략의 적극 이용에 대한 권고사항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단, 현장화의 기본은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긴밀한 정책협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분야별 상주 전문가 파견 및 현지 전문가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외교공관 및 KOICA 현지사무소 등의 현장협의체를 활용하여 현장중심,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철구, 홍진이. 2009.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제47권 3호.
권 올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혜옥. 2010. “독일과 일본의 대외원조정책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지역학협동과정 유럽지역전공, 연세대학교.
정상희 외. 2011. 『선진 원조 집행방안 모색을 위한 국별 비교』.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진. 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한송이 외. 2009. 『타 원조기관의 ODA평가제도』. 한국국제협력단.

Carol Lancaster. 2010. Foreign Aid

Hook, Steven W. Perter J. Schraeder, and Bruce Taylor.(1998). "Clarifying the Foreign Aid Puzzle: A Comparison of American, Japanese, French, and Swedish Aid Flows", 『World Politics』 50:294~323.

JICA. 2011. ODA Evaluation Guideline. JICA.

_____. 2012. New Jica And Project Evaluation. JICA

MOFA. 2011.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ECD. 2004. DAC Peer Reveiw. OECD.

참고사이트

<http://www.jica.go.jp>

<http://www.maff.go.jp>

<http://www.oecd.org>